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2. 25.(목) 11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주형돈 사무관 조군석
		전화번호	053-956-0365

주말과 휴일 산불, 동해안 강풍, 해상 풍랑 주의

- 경북북부내륙 중심 건조주의보 발효 중
 - 강한 바람에 불씨 확산 및 큰 화재 주의
- 26일 오후~28일 동해안 강풍, 해상 풍랑 주의
 - 시설물 피해, 선박 안전사고 주의



[2월 26~28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]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고정석)은 내일(26일, 금) 오후부터 28일(일)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, 각종 피해 대비에 대한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정보를 발표하였다.
- 최근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앞으로 바람까지 매우 강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[기압계 전망]

- 대구지방기상청은 28일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저기압, 북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동풍의 영향을 자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남북으로 서로 다른 기압계가 배치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겠고, 이로 인해 형성된 매우 강한 동풍의 영향과 함께 해상에서도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분석했다.
- 한편, 남쪽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의 영향으로 대구·경북지역은 26일(금)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.
- 한편, 경북북부는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대기를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.

[건조 전망]

- 25일 11시 현재 경북북부(경북북동산지, 영양평지, 봉화평지, 문경, 영주, 안동, 예천)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,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했다.
-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26일 오후부터는 동풍이 더욱 강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주말까지도 경북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잦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.
- 이에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을 자제하고, 논·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, 허용된 지역 외 취사를 자제하는 등 산불과 각종 화재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[강풍/풍랑 전망]

- (강풍) 점차 동풍이 강해짐에 따라 경북동해안은 26일 오후부터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90km(초속 25m)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.
- 특히 26일 오후~27일 새벽에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고, 28일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기 때문에
-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, 조립식 지붕 등 시설물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, 강풍에 날리는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- (풍랑) 26일 새벽에 동해상의 물결이 최대 6m 이상으로 매우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
-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발표되는 기간 동안은 해상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, 양식장 피해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
[강수 전망]

- 25일 11시 현재 대구·경북지역은 흐린 가운데, 오후(12시 이후)부터 비가 시작되어 26일 아침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.

< 예상 강수량 (25~26일) >

- 대구, 경북남부: 5~20mm
- 경북북부: 5mm 내외

- 특히, 기온이 낮은 산지(주왕산, 팔공산 등)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눈이 조금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.
- 한편, 3월 1일(월)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 있지만,
 - 저기압의 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과 시기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, 앞으로의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.